



### 내일을 여는 불자

유정길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환경운동은 우리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유정길사무국장은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본격 환경운동단체로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돼 다행이라고 말한다. 그가 수행처를 맡고 있는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자리한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교계에서 첫번째로 환경운동을 시작한 곳이다.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3명의 간사와 2명의 사무직원 그리고 틈틈이 들르는 자원봉사자들이 그의 수행 도반들이다. 지난 9월 4일 제1기 '생태학교'를 시작으로 10여명 남짓

상적으로 훌륭하더라도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모든 불교의 진리는 강변에 불과할 뿐이라 생각. 환경운동에 선도적으로 발을 내딛던 불교환경운동의 기수다. "환경운동은 파괴되고 손상된 곳을 복구하는 관리주의 운동이 아닙니다. 환경의 파괴를 통해 우리 삶과 마음의 자세까지 바꾸는 운동입니다."라며 생활세계의 정화와 지혜를 오늘에 다시 살리는 일이 바로 환경운동이라고 환경운동의 주체자로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불교교육원에서 근무하

### 봉선사 주지에 임명

윤경스님(원로)이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에 임명됐다. 윤경스님은 지난 1925년 태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자재암 흥통사 주지를 역임했다.

### '시민협' 토론회 주제

송필주스님(경실련 공동대표)은 11월 3일 YMCA 의정부 다락원에서 열리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 단체대표자 세미나에 참석. '시민협의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를 주재한다.

### 자비원 원장 취임

진철스님은 지난달 18일 동도사 자비원 원장에 취임했다. 현재 불교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을 맡고 있는 스님은 교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자비공산을 설립, 강릉유아원, 강릉시립복지원,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공주금강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위탁 및 운영했으며 '도 시'급이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대리력을 세우고 있다.

### 세종회관에서 설치미술전

성룡스님은 오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설치미술전을 갖는다.

### '차세대 경영' 강연

지광스님은 지난달 26일 국가경영전략연구회 주요정책 간담회에 참석. '차세대 경영과 신문화 형성'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 사자암 주지 취임

도각스님(진 해인지 편집장)은 상도동 사자암 주지에 취임. 지난달 26일 사부대중 1천여명

### 한중일 학술대회서 강연

송석규교수(중국대 부총장)는 지난달 26일 한국국민은리학회 주최로 한국학술

### 위업 장지연상 수상

신봉순씨(방송작가)와 정운경씨(중앙일보 상무대우 편집위원)가 각각 제 5회 위업 장지연상 방송부문과 언론부문 수상자로 선정. 11월 2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에서 수상식을 거행한다.

### 추사연구 도서 발간

최순택교수(원광대, 미술사)는 최근 '추사 김정희의 서화' 연구

서적을 발간했다. 이책에서 최교수는 추사 '김정희의 독특한 사색과 묵란도 산수도 등의 작품세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추사예술의 성격과 양식적 특성을 다양한 도판과 더불어 예리하게 규명했다.

### 대통령 표창 수상

김동훈씨(경제장이실한불교시인연합 사무처장)는 지난달 13일 국민제안시

### 재소자 참여극 '반달' 공연

조종희씨(은별극단 대표)는 전인교도소 재소자들을 출연시킨 연극 '반달'을 지난달 22일 천안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공연했다. 소년재소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시하고자 한 조종희씨는 이번으로 4번째 연극공연을 가졌다.

### 태극 관광광도 콘서트

이성호씨(수미산 여행사 대표이사)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1차,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2차로 태극관광 유도 콘서트를 갖는다. 회갑 고회를 맞이한 부모들을 위해 불교나라 태극에서 퍼포먼스를 열고 경매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이번 유도 콘서트의 화비는 1인당 55만원.

### 구룡사 청년회 8대 회장

박남주씨가 구룡사 청년회 제8대 회장에 선출. 지난달 30일 구룡사 만불전에서 이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 축하한 가운데 주지 진산식을 가졌다.

### 조계종 중정 표창 받아

전철영씨(재) 탄화 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은 초발심자경문치문 선요서장 금강장 기신론 인각경 회영연단 등 승가대학의 전문교재를 출판한 공로로 지난달 28일 대한불교 조계종 중정 표창을 받았다.

### 연꽃게의 전시 판매

정관수씨(불교회 회장)는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조계사에서 연꽃게의 전시 판매 행사를 가졌

다. 불교회가 개발한 6종의 상공중 연꽃게를 선보인 이번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써 달라고 조계종 추무원 사회부에 기탁했다.

### 서울시청 심의회

서울시 공무원들의 모임인 심의회(회장 조종봉)는 '83년 5월 6일 동작구청에서 탄생했다. 45명의 구성원들은 '불자로서 자비를 바탕으로 대

### 친절한 대민행정·경전보시 힘써

앞장서 국가와 불교발전에 주춧돌이 될것을 다짐하며 묵화 소리를 울렸다. 당시 행정기관 최초의 법회가 되었던 심의회는 구청 강당에서 봉행되는 월례 법회에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관심이 하나됨을 보여주었다. 법회 때마다 국내에서 제일가는 법사를 초청했다. 초심법자를 위한 기초교리서 <보살도>를 비롯 후대용 법회 지침서 <불자수집>, <선가귀감> 등의 경전 5만여권을 자체 제작하여 보급했다. 회원들간의 단합을 위해 사할참배를 갖는가 하면 경례를 불교식으로 여법하게 치루어주었다. 5년전 합창단을 창단해 불을 통해 신심을 높였다.

### 원회의 정상이 퍼져간 것이다.

단체부터인가 심의회는 단지 동작구청으로만 머물지 않고 서울시 구청을 순회하며 법회를 보게 되었다. "서울 공무원 5만명 가운데 불자임을 밝힌 이는 2천명에 불과합니다. 행정기관이 포교의 최대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신앙에 입문해 국가와 불교는 동시에 발전할 것입니다. 심의회 창립당시부터 줄곧 회장을 맡아 공무원포교에 헌신을 쏟고있는 조종봉회장은 "앞으로 공무원불자회관을 건립하여 포교 및 복지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준열 기자)

### 매주 산찾아 쓰레기 청소 생태학교 열어 환경 교육

한 1층 강의실을 거쳐간 이들이 3백여명. 이곳 생태학교를 통해 불교의 생명사상과 환경윤리 등에 관해 교육되어온 회원들이 모여 '초록바람'이라는 실천모임을 만들어 매주 등산을 통해 산중턱에 매립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의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해왔다. 서구의 직선적이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을 개별화 시키는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유국장은 결국 모든 것은 불교 등다는 순환적 세계관을 가진 중앙의 불교가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고 말한다.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 너와 내가 하나라는 자타일여의 사상은 생명운동으로서 환경운동의 큰 밑거름입니다." 유국장은 그러나 아무리 사

는 부인 이지현씨와 함께 매주 일요일이면 서울 흥재동의 정토포교원을 찾는 유국장은 "법사로서 늙을때까지 불교내에서 활동하겠다."는 사원을 세운 앞잡이 불자다. 앞으로 계속 세미나, 연구모임 등의 학적성과를 토대로 환경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에 필적 계획인 유국장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지도자 환경 워크숍"을 지역별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인간환경정책협의회 운영위원,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한국종교인권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실무운영 책임임을 수행하고 있는 유정길사무국장은 환경운동을 이끌어가는 자타가 공인하는 불교계의 대표 환경 파수꾼이다. (이은자 기자)

###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한국불교사회봉사회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소리가 없이 보살행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선봉이 되고 있는 단체가 있다. "내 이웃은 모두 한 가족"이라는 취지로 88년 발족된 한국불교사회봉사회(회장·문물녀 이하 '봉사회')는 지난 10월 16일 '심장병·백혈병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호암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으로 심장병과 백혈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

해 주었다. 지금까지 매회 4명씩 8명이 봉사회로 인해 새 생명을 찾았다. 봉사회는 중원스님과 3백여명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대병원과 군부대 고아원, 양로원을 방문, 월 1회 이상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또한 자금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회비뿐만 아니라 회원 모두가 동참하는 일일차집기 두모금, 자선바자회 등의 행사를 마련, 소년소녀 가장세대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일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등 여러단체에 생환비를 보조하고 있다. 봉사활동은 크게 의료봉사 및 위문봉사, 자선활동으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20여명의 청년회원들은 매일 셋째주 일요일 성남시 소재 자광원을 방문, 생활용품 전달하기도 하며 청소, 팔레트를 해 주면서 부모형제처럼 말벗이 되어 서로의 끈끈한 정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매일 22일에는 서울대 학생회에서 의뢰에 필요한 재료를 일일이 손질하는 노력봉



서울시 신하 22개 구청을 순회하며 법회를 갖는 심의회는 지역주민의 법회동참을 유도해 호응이 높다.

### 서울시청 심의회

서울시 공무원들의 모임인 심의회(회장 조종봉)는 '83년 5월 6일 동작구청에서 탄생했다. 45명의 구성원들은 '불자로서 자비를 바탕으로 대민행정에 임하고, 국민화합에

### 친절한 대민행정·경전보시 힘써

앞장서 국가와 불교발전에 주춧돌이 될것을 다짐하며 묵화 소리를 울렸다. 당시 행정기관 최초의 법회가 되었던 심의회는 구청 강당에서 봉행되는 월례 법회에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관심이 하나됨을 보여주었다. 법회 때마다 국내에서 제일가는 법사를 초청했다. 초심법자를 위한 기초교리서 <보살도>를 비롯 후대용 법회 지침서 <불자수집>, <선가귀감> 등의 경전 5만여권을 자체 제작하여 보급했다. 회원들간의 단합을 위해 사할참배를 갖는가 하면 경례를 불교식으로 여법하게 치루어주었다. 5년전 합창단을 창단해 불을 통해 신심을 높였다. (이준열 기자)



호도동공원의 일함으로 양로원을 방문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교도소, 재활원, 환경미화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같이 한다. 봉사회아래로 부처님의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김종근 기자)

## 불교 성지 순례

# 인도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부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오랫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오신 오규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학 교수, 한국-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드릴것입니다.

### -순례 일정표-

제1일	12시45분 대한항공 631편으로 방콕 출발
제2일	방콕-카트만두(수와이엠부트, 라마불교사원 참배)
제3일	히말라야산(원숭이 사원, 쿠미르 사원등 순례)
제4일	카트 만두-룸비니 순례-소노울리
제5일	소노울리-발람푸르(기원 정사 순례)
제6일	발람푸르-쿠시 나가르(부처님 최후의 설법지, 열반지, 화장터등 순례)
제7일	쿠시나가르-바이살리(아난다 담, 부처님 사리탑등 순례)
제8일	파트나-라자기르(죽림정사순례)-부다가야
제9일	부다가야(마하보디 대탑)-사르나트(녹야원 참배)-바라나시
제10일	바라나시(갯지스강 유람)-아그라
제11일	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등 순례)-보사힐
제12일	보사힐-아잔타 석굴-오랑가바드
제13일	오랑가바드-엘로라-볼배이(비치 야경 관광)
제14일	볼배이에서 06:00시 대한항공 806편으로 서울 향발

근 동참금 : ₩2,190,000(신청금 포함, 여권인지대 별도)

근 신청금 : ₩200,000

근 출발안내

- 제1차 순례 : 12월4일~12월17일(신청마감일 : 11월19일)
- 제2차 순례 : 1월1일~1월14일(신청마감일 : 12월17일)
- 제3차 순례 : 2월5일~2월18일(신청마감일 : 1월21일)

근 수속 준비 서류(인도-네팔 비자 포함)

- 여권 미소지자: 주민등록등본 3통, 여권용 사진 8장, 주민등록증, 인지대 : ₩45,000
- 여권 소지자: 여권,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용 사진 4장, 주민등록증 사본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아태관광 732-3200(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89-22 신문B/D 501호